

생태공원 탈바꿈 무등산 중심사

1972년 공원 지정 후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중심사 지구가 자연 그대로의 맑고 깨끗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시(시장 박광태는 3월 6일 중심사 지구 비지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중심사 주지장 스님과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광주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중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 광주시 등이 한마음으로 뭉친 이번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진행됐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중심사 계곡을 따라 2km가량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해, 무등산에 자생하는 향토수종 군락과 주변 산책로,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

아울러, 중심사의 오염원인 상가들을 철거하고, 입구에 조성된 상가단지도 이주시켜 중심사의 발원지인 덕산골과 약사사 계곡 하천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환우를 위한 나눔의 1만배 기도

광주생명나눔실천·광주불교환경연대, 자비 행사 이어져

광주지역 불교계가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정진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펼쳐 눈길을 모은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3월 23~30일 제2회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완치를 기원하는 '생명나눔 1만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행사에는 광주지역 사찰인 원효사, 금선사, 달마사(화순), 동원사, 문빈정사, 비전사, 연화사, 원각사, 정안사, 천룡사, 흥룡사, 반야유치원 등 13개 사찰이 참여해 부처님 출가 제일부터 열반제일 동안 정진할 예정이다.

광주 생명나눔은 이 기간을 '생명나눔 실천주간'으로 정하고 '나눔의 1만배 기도'를 올리고, 환우를 위한 기도비를 모금한다.

본부장 현지 스님은 "부처님 출가 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는 사찰마다 기도정진을 하며, 부처님 출가의 의미와 공덕을 생각해야 한다"며, "생명나눔 실천주간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나눔의 1만배' 기도를 통해 불자들의 마음이 어려운 환우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이번 기도를 통해



광주지역불자들이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완치를 기원하는 1만배정진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모금되는 후원금은 아픔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많은 사찰과 불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대중은 해당 사찰이나 가정에서 소아암 환우의 쾌유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1배 100원의 정진기도에 동참한 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하면 된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지난해 제1회 행사에서 900여 만원을 모금해 5명의 환우에게 매월 10만원과 쌀

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원식 후 각 단체에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활동가들은 유철홍(참여자치21 간사), 손희정(시민생활환경회의 간사), 노미덕(광주불교사단 상근간사), 백희정(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민경(광주주요직업노동조합 간사), 이주성(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 문귀례(광주불교사우연협회 간사), 김진희(지장왕사 사무장 등 불교단체를 포함한 30개 단체 관계자이다. 또, 섬포교지원단(진행 이준영 호남불교문화원장을 위한 특별지원도 진행했다.

이해도 집행위원장은 "각 사찰에서 부처님 전에 올린 소중함 공양미를 지역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다시 회향하는 자비의 쌀 나누기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보시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뜻 깊은 나눔의 장이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말했다.

한편, 올해 제4회 짝인 자비의 쌀 나누기는 광주전남전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다.

광주생명나눔 소아암환우돕기회 원 (062)234-66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지역 부루나존자

재가자 주말선방 개설하는 참담암 대선 스님

“수행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환영”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가는 길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참담암 표지가 눈에 들어온다. 다가오는 새벽을 시샘이나 하는 듯 때늦은 눈 속에 묻혀 적목 속에 잠겨있는 참담암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동안거 해제와 함께 참선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을 위해 주말 참선방에 방부를 들일 손님맞이에 분주한 대선(大禪) 스님은 편안한 미소로 낮은 목소리를 들려준다.



참담암 주지 대선 스님.

“일반 재가자들이 간혹 자신이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두를 들고 깨친다는 생각보다는 화두를 드는 순간 이미 정혜가 일어납니다. 간혹 자신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 어렵다는 선입견속에 해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선 스님은 간혹 대선 대중화를 위해 최근 재가 참선방을 개설했다.

스님은 “처음 시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이 좋아 힘이 난다”며 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선운사에서 산을 오르다보면 도솔암 가는 길과 참담암 가는 길이 나뉩니다. 도솔암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만 참담암을 찾는 사람들은 드물죠. 등산객들도 참담암 쪽은 잘 오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과 가고자하는 길이 달라 그럴 것입니다. 천상 참담암은 선으로 안성마춤입니다.”

선운사 선원으로 운영 중인 참담암은 지난 동안거에서 10명의 스님이 안거를 냈다. 지금은 선운사의 산내암자로 사적이 위축됐지만 참담암은 참담사 또는 대참사(大憚寺)로 불

릴 정도로 거창이었다. 과거 점 참법회를 통해 1년 내내 참회정진하던 도량이기도 했다.

대선 스님은 “선운사와 함께 출재가자들이 함께 1년 내내 수행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재가 참선방의 시설을 개비해 누구나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꿀 원력을 세웠다. 그 결과 지난해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당우를 신축했다.

대선 스님은 “안거기간 동안에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가자들은 주말에만 참선방을 운영하지만 앞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7일간 정진 같은 단기정진 프로그램과 안거기간 동안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재가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는 박문정(무상, 39, 고창읍) 보살은 “고창 같은 농촌 지역에도 함께 수행 정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멀리 서울, 광주, 부산 등지의 재가선원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며 “마침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참담암에 재가선원이 생긴다니 이전 즐거움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원만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수행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063)563-3440 조동제 전북지사장

“명예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3월 11일 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동(71세, 고창군 심원면) 어르신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의 명예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무공 스님은 “오늘날 풍요롭게 사는 것은 지금의 어르신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 일수록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신중함이 더욱 절실하다”며 “어르



고창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인생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발원하고 있다.

신들이 맡은 각자의 사업 현장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김현주 팀장의 '노인학대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김정옥 복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복지행·교육행·공익행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행스님 초청법회 봉행

완주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

일제 강점기 31본산의 하나로 유명한 비구니선원 전북 완주 위봉사(주지 법종)가 3월 7일 일요법회장을 11주년을 맞아 김계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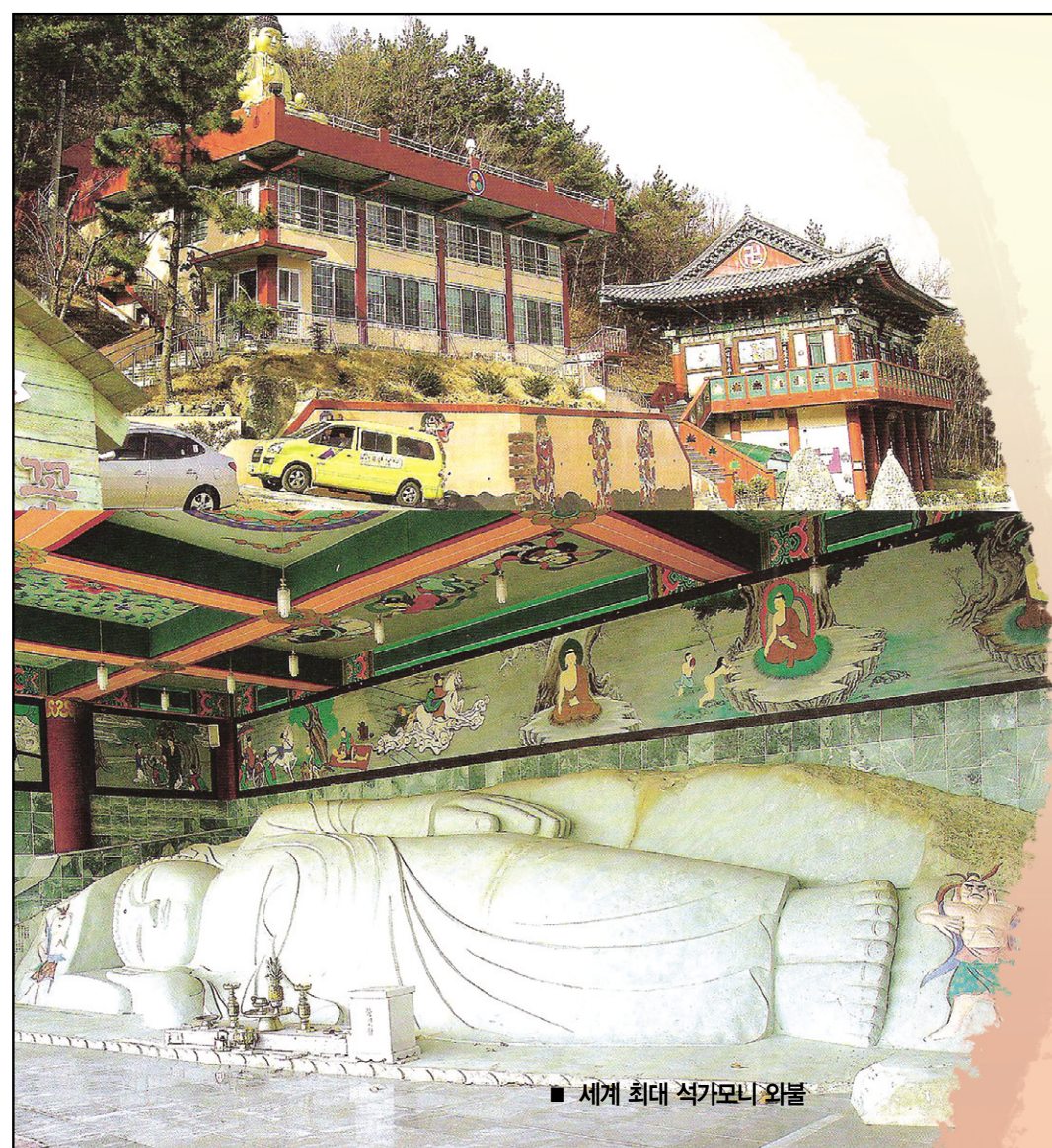
행사는 200여 일요가족불자들이 보채루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거 우리불교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수행 의지 속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항상 변하지 않는 내안의 진여 불성을 갈고 닦아 부부, 가족 간의 도리를 지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상 생활 속에서 보살도정신을 실천하며 수행 정진하는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회장 이두연)는 2월 21일 포교사교사에서 10명의 신규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날 위봉사 주지 법종 스님은 이러한 일요가족불자회원들을 위해 공부방을 마련해 선화당이라는 당호를 내렸다.

한편, 위봉사 30여 대중스님은 이날 스님들이 직접 재배해 만든 된장, 간장, 천연비누, 감자부각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위봉사 전각들의 기와복사와 위봉사 신도들의 전주 화엄불교대학 장학금, 위봉사에서 운영하는 위봉사 선원 스님들의 교육에 사용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세계 최대 석가모니 와불

공 사단법인 금강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고

본 종단은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원음을 바르게 알고 펼치는 청정사 종도 비구, 비구니 스님을 모집합니다.

■ 입증서류

- 여권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증사본 (앞, 뒤복사) 1매
 - 사찰 내외 사진 1매
- (입증 동시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본 종단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일체 관여 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석가모니 와불 가피로 중생 제도 진력 하는 (사) 금강불교 조계종의 종지와 근본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 사상 실천이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신다. 대승불교의 진면목인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의 보살도 정진을 대중중에서 실천 하고자 하는 동체대비 대원력의 발현이다.

총무원장 혜명 합장

총본산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 649-5959 H.P: 010-9244-3358